

# 지역 의원들 “경선 붙어보자”

## 안택수, 이명박 캠프 합류...박종근 “팽팽한 대결 될것”

### 대구, 親朴 8명·親李 4명 세력 분포

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이명박, 박근혜 한나라당 대권후보에 대한 지지여부가 속살을 드러내면서 경선 5개월을 앞둔 지역 국회의원들간에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다.

지난달 31일 주호영 의원(대구 수성을)이 여론지지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하기로 밝힌 가운데 안택수 의원(대구 북구을)도 2일 낮 이 전 시장측에서 활동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할 예정이다.

안 의원은 최근 이 전 시장 측에서 대선후보 경선 과정의 역할을 제안받았고 최근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들 두 의원은 지난해 당 대표경선 때 박 전 대표가 후원하는 강재섭 대

표가 아닌 이 전 시장이 지원한 이재오 최고위원을 지지하는 투표성향을 보여 일찌감치 이 전 시장 캠프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태였다.

여기에 최근에는 중립 입장을 보이던 김석준 의원(대구 달서병)과 이명규 의원(대구 북구갑)도 본격적인 친이명박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 따라 대구지역 12명의 국회의원은 강 대표와 박 전 대표를 포함하면 친박 8명, 친이 4명의 세력분포를 보이고 있다.

경북에서는 14명의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이 전 시장의 고향인 포항출신의 이상득, 이병석 의원 경주의 정종복, 안동의 권오을, 영양·영덕·봉화·울진의 김광원 의원이 확실한 이 전

시장의 원군으로 분류된다. 여기에 상주의 이상배 의원이 친이 쪽으로 기울는 듯한 모습이며, 김천의 임인배 의원은 1일 김천을 방문한 이 전 시장을 당원교육에 초청해 친이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.

박 전 대표 측에는 고향인 구미의 김성조, 김태환 의원, 고령·성주·칠곡의 이인기, 경산·청도의 최경환, 군위·의성·청송의 김재원 의원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.

친박인 박종근 대구시당위원장은 ‘예상했던 일’이라는 반응을 하며 ‘이제부터 시작’이라는 입장을 보였다.

박 위원장은 “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한다”며 “일반적인 여론과 달리 당내 경선에서는 두 후보간의 팽팽한 대결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김상섭기자 kss@idaegu.co.kr